

대형 할인점 특하면 '유령 집회'

매장 앞 항의 시위 막으려... 시민단체 "집시법 악용" 반발

광주시내 대형 할인마트들이 시민단체 및 소비자의 항의성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할인점 주변에 자체 집회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해놓고 있어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의 자유' 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주시내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문과 후문을 비롯, 인근 도로에 직원 50~100여명이 참가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및 자사홍보' '노사화합 및 단합대회' '입권보호 결의대회' 등 갖가지 명목의 집회 신고를 경찰에 하고 있다. 이들 할인점은 15~30일 단위로 집회신고를 계속 연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대부분의 집회는 열리지 않는 '유령 집회'였으며, 열리더라도 소수의 직원이 나와서 진행하는 자사 마케팅 차원의 홍보캠페인 정도였다.

이처럼 할인점측이 집회신고를 계속할 경우 현행법상 시민단체나 개인은 할인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집시법(8조 2항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할인점 측이 제도를 악용해 원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할인점측의 변칙적인 집회 신고는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매장에 오물을 투척한 사건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2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할인점측이 집회를 막는 가장 손쉽고 간단한 방법을 악용,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하는 집회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집회를 차단하는 것은 여론에 따라 미국 쇠고기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인 정재웅(천지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나 시위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위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할인점측이 계속적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해놓는 바람에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인이 수차례 집회를 하지 못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남구 모 할인점 관계자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 쇠고기와 관련해서 집회 신고를 해 놓은 것은 아니다. 단지 집회가 열리게 되면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방어적인 측면에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일보 기자 kps@kwangju.co.kr



'한가득' 추석 장보기 추석을 4일 앞둔 9일 낮 고흥군 고흥읍 5일장에서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을 가득 산 주민들이 시장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버스업체 前 대표 보조금 유용 수사

전남지방경찰청은 9일 "전남지역 한 운수업체 전 대표가 이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일부를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2005년 이후 예산 사용 내역 관련 서류를

확보, 분석중이다. 경찰은 오지 노선 운영 등을 위해 군에서 지원한 연간 2억원 가량의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누군가 이 법인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는 첩보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추석 연휴 음주운전 '금물'

지난해 교통사고 20.5%가 술 때문

추석 연휴 기간 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9월24~26일)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71건(광주 53건, 전남 118건)의 사고 중 20.5%인 35건이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은 9건, 전남지역은 26건이었다.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광주가 92명, 전남이 사망 2명을 포함한 298명 등 모두 39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이유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거나 다음날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와 평상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87.8건인 반면 최근 5년간 평균 음주사고는 77.4건으로 10여건이 많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안티 MB' 회원 3명 흥기에 찢려 부상

30대 남성이 조계사 내 촛불 수배자들을 지지하는 '안티이명박카페' 회원들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논쟁을 펴다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흥기를 휘둘러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9일 경찰과 광주병국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5분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 옆 우정국 공터에서 박모(38)씨가 갑자기 안티이명박카페 회원 3명에게 흥기를 휘둘렀다. 문모(39)씨와 윤모(31)씨는 머리와 목, 얼굴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모(38)씨는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다.

있는 박씨는 이날 밤 피해자들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의견이 맞서자 식당에서 흥기를 들고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흥기에 찢린 피해자들은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촛불' 수배자들을 지지해 온 안티이명박카페 회원들로 경찰은 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병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긴급논평을 내 "조계사 부근에서 근무 중이던 사복형사들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사건 발생에 미흡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故 안재환씨 빈소 조문 행렬 줄이어

혼인 신고 안해 채무 승계 의무없어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안재환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성모 병원에는 9일 동료 연예인을 비롯해 친지 등 조문객 행렬이 이어졌다.

〈관런기자 17면〉 이날 빈소에는 김가연, 김희철 등을 시작으로 김진수, 김미화, 김제동, 김정은 등 평소 안재환 부부와 친분이 두터웠던 이들은 빈소를 찾아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이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었고, 조문객을 맞은 정선희 등 유족을 위로했다. 일부 연예인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9일 오전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기

독교식 예배가 빈소에서 30분 가량 열렸다. 예배는 정선희를 비롯한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치러졌다.

한편 정선희는 8일 밤 경찰 조사에서 "안재환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선희는 고인이 남긴 부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전했다.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신 부검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발인은 11일 오전 8시이며 발인 후 성남시립화장장에서 화장하기로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600) 김장동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력 및 상담관행

'35년 앙심' 품은 60대 방화 기도

○오래 전 일로 앙심을 품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35년 만에 만난 상대방의 차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9일 버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A(60)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B(63)씨의 35인승 버스 조수석 창문을 깨고 들어가 휘발유통을 던져 불을 지르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5년 전 한 지붕에 살던 B씨가 숙곳 치림으로 자신과 부인이 자는 방에 들어와 가정불화가 생겼던 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수십년이 흘렀지만 5년 넘게 친구처럼 지내던 B씨를 금세 알아본 뒤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A large advertisement for traditional Korean food products, featuring a scenic landscape background and several product images in the foreground.